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0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0호

김정일총비서께서 찾으신 단위수

1만 1,326개, 연장거리 42만 3,307키로메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60성상의 혁명력사는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인민을 이끄신 영광의 력사로 빛을 뿌리고 있다.

그이의 현지지도방법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의 계승이며 그 빛나는 구현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찾으신 단위수는 무려 1만 1,326개 단위에 달하고 있다.그 나날 그이께서는 5,781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무려 42만 3,307키로메터(105만 8,260여리)의 머나먼 길을 걷고 걸으시였다.

그 길은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220번 다녀 오신것과 같은 거리이며 지구를 근 11바퀴나 도신것과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부터 주체53(1964)년 3월까지의 기간에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시거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리시면서 2, 870개에 달하는 단위들을 찾으시고 6만 4,719키로메터(16만 1,790여리)의 머나먼 길을 걸으시며 1,567일의 기나긴 나날을 바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 그이께서는 4,214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8,456개에 달하는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그 연장길이는 35만 8,588키로메터(89만 6,470여리에 달하고 있다.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근 3분의 1에 해당한 나날을 현지에서 사업하신것으로 된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주체84(1995)년부터 주체90(2001)년까지의 7년 기간에도 그이께서는 1,300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그중에서 무력부문만도 814개 단위이나 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기간 577일에 걸쳐 11만 6,694키로메터(29만 1,730여리)에 달하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6차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의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6만 8,446키로메터(17만 1,110여리)에 달하는 기나긴 로정을 이어 가시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2.16경축모임

(2월 8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7일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의 경축사와 농근맹원들의 연설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 지적되였다. 또한 농업생산을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등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최근동정

1 김정일총비서께서 찾으신 단위수 1만 1,326개, 연장거리 42만 3,307키로메터
1 단신 –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2.16경축모임

노작

2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세기와 더불어

4 1장 5절 ≪압록강의 노래≫ (3)

칭송

6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2)
6 인류의 봄을 불러오는 태양
6 영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은 찬란하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8일
8 미국방장관 럼스펠드 이북을 비난하는 망발
8 친일족속의 후예 이회창

광고

15 6.15주간 제33호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8일 뉴스
10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 (2) –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아리랑뉴스

12 국민 71% ≪≪악의 축≫ 발언 부적절≫
12 김용갑–김원웅 ≪부시 발언≫ 놓고 설전
13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 발표 규탄 기자회견
13 부시 방한 반대,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
13 전 주한 미국대사들 이북방문 무산
14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3)
14 민가협 설 앞두고 414차 목요집회 개최
14 새해맞이 공동행사 2월27일로 연기키로

통일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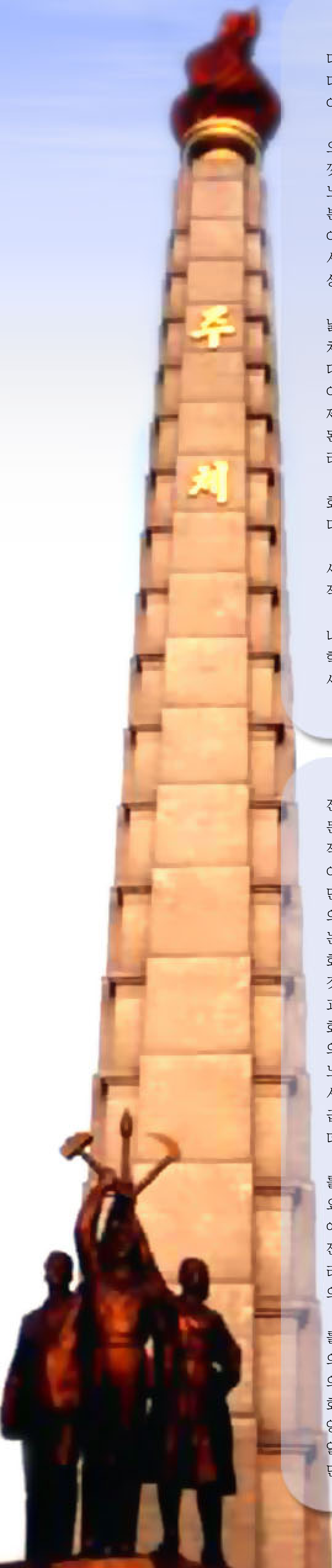
15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2)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3)

주체77(1988)년 9월 15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커다란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었습니다.

인민대중이 다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생활과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생활을 대비하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어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회주의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어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창조적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제도는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은 앞날에 경제기술적 면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훨씬 능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이용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털어놓고 말하면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새 사회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서 좌우경적인 편향도 범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과정에도 편향이 나타났지만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 호상간의 관계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도 일련의 엄중한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들은 결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는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원만히 준비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투쟁은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입니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 것이 멸망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입니다. 새 것의 승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역사의 이 법칙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류역사발전과정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새것이며 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억제하는 것은 낡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봉건적 신분제도는 철폐하고 부르조아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봉건주의에 비하여 새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에서까지 벗어나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억압함으로써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낡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본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은 사회주의길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그것을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착취사회의 낡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야말로 인민대주의 자주적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 사회입니다.

낡은 것이 새것의 탈을 쓸 수도 있고 죽어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되살아 나는 것같이 보일수도 있으나 낡은 것은 사멸해가는 존재이므로 전도가 없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새 것과 낡은 것을 똑바로 가려보아야 하며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문화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인텔리대열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접근할수록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줄어들고 온 사회가 인텔리화되는 것은 합법칙적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노동계급적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발전과정은 계급적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온 사회가 노동계급화되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텔리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노동계급적 성격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화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입니다.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는 개인이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이러한 요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공동의 염원과 일치합니다.

사회주의사회가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인 것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반드시 노동계급의 전위부대인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할 수 없고 사회주의의 고유한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공사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갈 수 없습니다. 당의 영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이 발전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낡은 이론과 방법을 답습할 때에는 교조주의, 주관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되며 변화된 현실을 구실로 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저버릴 때에는 수정주의, 개량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영도하는 노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사람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것도 사람인 것만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야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을 튼튼히 단련한 사람은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책동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면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머리를 쳐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승패의 근본요인을 객관적 조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핵심역량이며 영도적 역량인 당부터 강화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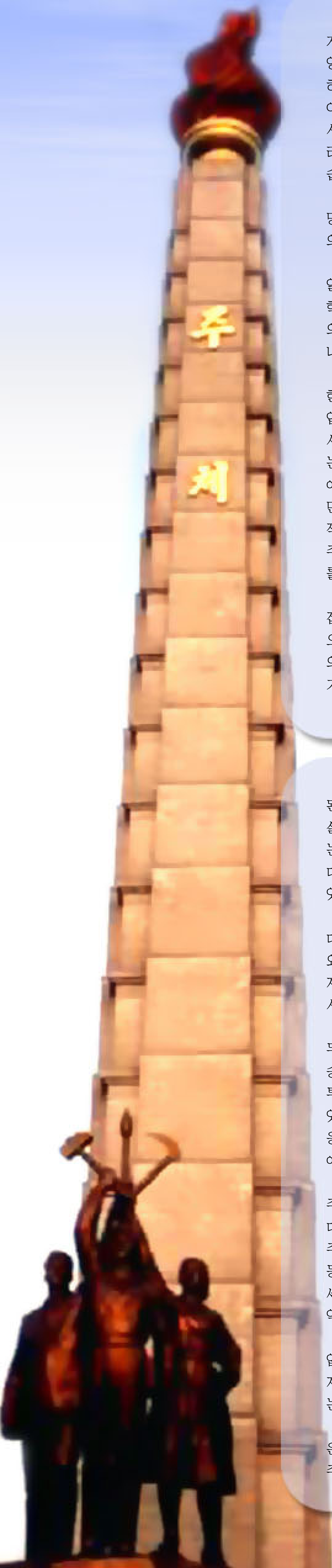
당이 사상적으로 건전하여야 대중이 사상적으로 건전할 수 있고 당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대중도 사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다이 단결되어야 대중이 단결될 수 있고 당이 분열되면 대중도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이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사상이론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려면 또한 광범한 대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어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는데 맞

➡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열, 이간 책동을 짓부수고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게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공백이 생겨 부르조아사상이 침습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혁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통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에 따라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인 것만큼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대중의 자각성과 헌신성을 불러일으키는 외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다른데서 그 어떤 묘술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인연이 없는 자본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역사상 유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은 시종일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제국주의 원흉인 미제국주의가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자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두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현실에 맞데 마르크스-레닌주의혁명이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운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당건설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야한다는 것을 가르치시었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 역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아무런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가장 큰 동맹자인 일본과 인접해 있고 아시아대륙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남조선의 전략적 의의를 중시하면서 남조선을 핵군사기지로 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한 세계반동을 그러모아 남조선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자본주의의 ≪우위성≫을 시위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크지않은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의 연합된 세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면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코 제국주의에 유리한 시대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멸망이 가까와오고 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현시대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공도의 투쟁과업입니다.

매개 나라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그 나라 인민이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블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역량입니다.

반제자주역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 바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단결이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더욱이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연합된 힘으로 사회주의와 세계진보적 인민들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 모든 반제자주역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제자주역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노동당들은 혁명적 입장을 고수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노동당들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제적 입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민족이기주의를 반대하고 호상존중하며 협조하는 동지적 관계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현대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원쑤일 뿐 아니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반제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열, 이간 책동을 짓부수고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세계 모든 반제자주역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블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반제자주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 자주화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계속 견결히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약탈하였으며 오늘도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주적인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것처럼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할 숭고한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투쟁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5. ≪압록강의 노래≫(3)

나는 이렇게 두해를 보내다가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였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칠골에서도 만경대에서도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내 얼굴만 지켜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원쑤, 우리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내가 팔도구를 가겠다고 하자 외가집에서는 가도 졸업이나 한 다음에 가라고 하였다. 만경대의 할아버지도 이모저모로 설복하였다. 몇달만 지나면 학교도 졸업하고 날씨도 따뜻해질터인데 그때를 기다려 떠나도록 하라는 것이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한테 불행이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히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 내 이제 아무데 간들 피값이야 못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돌려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를 바꾸어 내 결심대로 하라면서 아버지가 령어의 몸이 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였다.

다음날 나는 집안어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났다.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울고 삼촌도 울고 온 집안이 다 울었다.

나를 바래우려고 평양역에 나왔던 작은외삼촌(강창석)도 몹시 울었고 칠골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던 강윤범이도 슬피 울었다.

창덕학교시절의 동창생들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동무가 바로 강윤범이였다. 그도 배짱이 맞는 동무가 없다나니 나한테 늘 놀러오군 하였다. 우리는 뿌르르 하면 같이 성안에 들어가군 하였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되였을 때 강윤범은 나에게 밥구레미와 함께 봉투 한장을 주었다. 너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기에 서운해서 몇자 적었으니 차칸에 올라가 뜯어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대로 차가 떠난 후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속에는 짤막한 편지 한장과 돈 3원이 들어있었다.

그때 그 편지와 돈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되였는지 모른다. 동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차릴수가 없다. 그때 형편에서 어린 나이에 돈 3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헐한 일이 아니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다고 막상 떠나기는 하였으나 사실 나한테는 그때 로자가 문제였다.

강윤범이가 나를 궁색한 처지에서 구원해준 셈이다. 그도 그 돈을 구하기가 무척 빠근했던 모양이다. 해방이 되자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첫인사로 돈을 받고 고마왔던 20년전의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그때 그 돈을 힘들게 구했노라고 실토하였다. 정말 부자들의 백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돈이였다. 그 돈 3원에 실려있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우정의 무게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돈에서는 우정이 생기지 않지만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별의별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창덕학교시절의 친우 강윤범

강윤범은 그때 나보고 장군은 산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했지만 자기는 별반 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힘을 합쳐 새 나라를 건설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강윤범에게 지금 건국사업에서 제일 걸리고 있은 문제가 간부부족인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한부분 맡아주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는 선뜻 응해나섰다. 얼마후 그가 조촌에다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에 내가 삼흥중학교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삼흥이란 지, 덕, 체 세가지가 다 흥한다는 뜻으로서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다 갖춘다는 것이다.

강윤범은 그후 종합대학 건설을 책임지고 일을 잘하였다. 지금은 대학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 그닥 큰 문제로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자금도 없고 건설기능자도 없어 곤란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는 일하다가 걸린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밤새도록 의논하군 하였다.

강윤범은 나를 광복의 길로 전송해준 잊지 못할 동지였고 친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 평양역에서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래주던 강윤범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성주, 너와 헤어지자니 눈물이 나서 못견디겠구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게 될가? 우리 서로 만리밖에 있어도 잊지 말고 창덕학교시절을 생각하자.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 나라를 생각하자.

그때 그가 준 쪽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나는 이런 우정과 의리에 고무되어 또다시 험한 고개들을 넘고 또 넘었다. 만경대를 떠나 열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는 포평에 도착하였다. 나는 나루터에 다달은 다음에도 인차 압록강을 건느지 못하고 강뚝에서 서성거리였다. 팔도구로 건너가자니 지나온 조국산천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당기였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내 손을 쓸어주고 옷깃을 여며주고 눈보라를 걱정해주며 눈물짓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이제 뚝을 넘고 강만 건느면 눈물이 마구 쏟아져나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찬바람이 불어대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조국에서 보낸 세월은 비록 두해밖에 안되었으나 그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

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깊이 리해하게 된 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용감하고 강의한 인민이였다. 어떤 곤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례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인민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연정회의 간판을 가지고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나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광복된 조국을 안고 오리라

나는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군대와 경찰과 감옥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략탈해가는 화차들과 화물선들을 보면서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하는 악독한 착취자, 략탈자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숨막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품게 해주었다. 조국을 한시바삐 되찾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 조선의 것으로 만들고싶은 념원이 불길처럼 나의 가슴속에 타번지였다.

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포평나루터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여울목에서 압록강얼음판에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디였다. 폭이 백자도 되나마나한 그 강만 건느면 팔도구시가이고 그 강안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강건너쪽으로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조국을 하직하면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강뚝우에 나딩구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고 손바닥에 감싸쥐였다. 조국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조국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소중히 간수하고싶었다.

그날 압록강가에서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리적체험을 하였다. 그날의 그 체험이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기 때문에 나는 조국에 개선한 후 국내애국자들이 나를 환영하여 차린 연회석상에서도 압록강을 건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나는 입속으로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 내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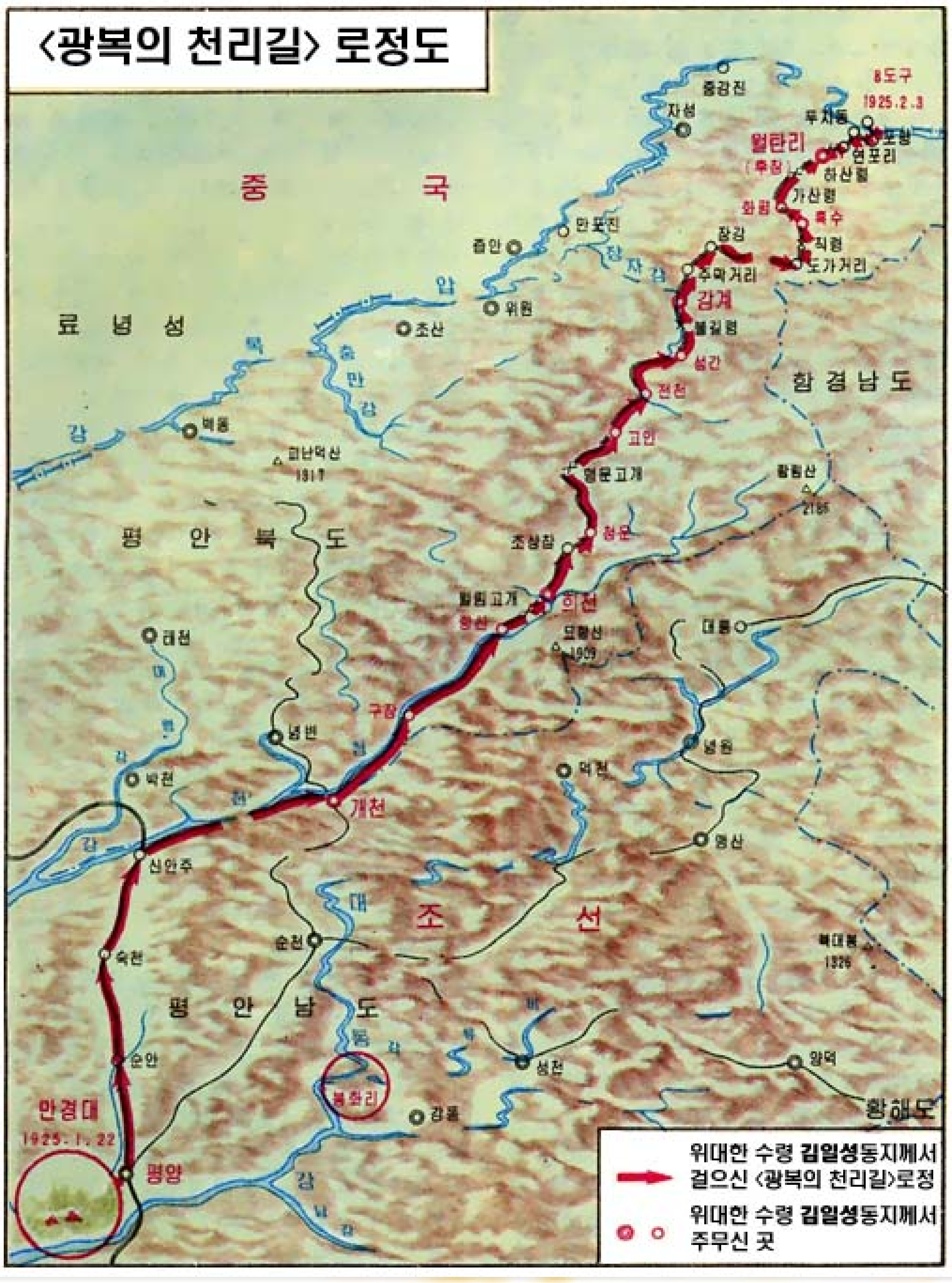
나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끝)



평북 도구장군에 있는≪광복의 천리길≫ 현시비

일화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2)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남수재민들에 대한 이북민중의 구호물자송달은 그분의 숭고한 동포애에서 나온 사랑의 조치였다.

1984년 8월말에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렸다. 이무렵 동해안지구와 평남도일대에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그분께서는 어느날 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을 보시며 측근의 한 간부에게 다음과 같은 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비가 자꾸 내리니 남조선인민들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비가 퍼부으면 남조선에 영낙없이 큰 물이 집니다. 큰물이 나면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할게 아닙니까.… 밤이 깊어가면 그리움이 간절해지는가 봅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생각만 떠오르면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조국의 분렬 때문에 겪고있는 남녘동포들의 불행은 나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분렬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비가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거듭 외우시였다. 그렇지만 비는 멎지 않았고 그분께서 우려하신대로 끝내 남녘에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쏟아부은 폭우로 대홍수가 나고말았다.

이남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수재로 3백 50명이 사망하고 20만 7천여명의 리재민이 났으며 3만 6천 7백여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많은 농경지가 류실, 매몰되는 참상이 빚어졌다.

이 기막힌 통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측근의 간부에게 이렇게 이르시였다.

≪우리는 수해를 입은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지에서 떨고 있을 리재민들을 걱정하시며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수재민들의 피해상황을 헤아리시고 수재민들은 당장 식량, 주택, 의약품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며 적십자기구를 통해 쌀5만석, 천50만메터, 세멘트 10만톤, 많은 량의 의약품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 구호물자는 금액으로 볼 때 국제적십자구제운동사에 일찍이 없었던 1천 8백만불에 해당하는 거액이였다.

이남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제금의 액수가 거창한데서 세상사람들은 물론 이북의 간부들까지도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한동포들 구원하는 일인데 구호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해두었던 것을 남조선동포들을 구제하는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민족이 제일입니다.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녕 이 사랑의 구호조치는 높이 쌓아진 분렬의 장벽을 넘어 남녘겨레에게 혈육의 정을 안겨주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고결한 인간애, 동포애의 숭고한 결정체였다. 그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께서는 이남수재민들에게 엄청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신 **김정일**령도자의 동포애적의리와 통일 큰 도량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줄때마다 나는 그의 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끼군합니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준 것만 보아도 얼마나 통이 크게 설계하고 조직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는 량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여도 미국이나 일본이 남조선에 준 구제금과 대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송시

김정일, 인류의 봄을 불러오는 태양

만물에 소생의 빛과 열을 주듯
인류에게 참삶을 안겨주는 그 태양
그 태양의 빛발 안고
인류는 자주화의 거세찬 대하 이루었나니
그 태양,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백두산의 태양
그 태양, 20세기 태양의 시대를
21세기로 이어주는
김일성형의 위대한 **김정일**태양
그 태양 없으면
세계는 암흑의 세계, 빙하의 세계
그 태양 없으면
나도 별찌마냥 순간에 사라지리니
조선이 살고 세계가 사는
김정일태양의 시대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
자주화의 새 봄을 그리며
소리 높이 외치노니
- 나는 **김정일**태양계의 영원한 행성
영원불멸하여라
김정일태양이여
자주의 봄과 함께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

흠모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은 찬란하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고 있다.

외국의 벗들은 절세의 위인, 비범한 영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고무해 주고 있다.

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 나라얀 만 비죽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분이시다. 나는 여러 차례의 조선방문을 통하여 비범한 사상이론가, 높은 식견과 걸출한 지도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영도적 수완에 매혹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시는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 시키실 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계신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노작들은 사상이론의 독창성과 심오성,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조선인민 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이께서는 누구도 지닐 수 없는 혁명적 정열과 조직적 수완으로 당, 국가,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눈부신 기적들은 그이의 비범한 영도와 잇닿아있다. 그이께서는 당을 강유력한 전투적 대오로 강화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일심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었으며 그 불패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시었다.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 중앙위원회 위원 마르씨아 깜뽀스는 **김정일**동지는 수십 년간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시면서 오직 승리만을 이룩하신 정치원로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은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페루좌익혁명동맹 전국집행위원회 총비서 따니 발레로 로쎄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 원칙성, 비범한 담력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과 악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희망인 사회주의 조선에 대한 봉쇄와 공격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그 위업을 전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승리의 전역사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역사의 중대한 책임을 한 몸에 지니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자그마한 동요나 주저도 모르시며 드놀지 않는 혁명적 입장으로 역사의 반동들에게 준엄한 타격을 가하고 계신다.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치며 피로서 지켜낸 혁명의 붉은기는 오늘 조선인민의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그 기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라고 부르며 그이 따라 승리를 위해 떨쳐나섰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하리하르 비라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인민의 모든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시다. 시대의 걸출한 분이신 그이를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승리를 굳게 확신한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5일~8일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한평생이 집대성되어 있는 불멸의 태양전서 ≪세기와 더불어≫. 청사에 기리 빛날 위대한 사상과 업적, 고매한 풍모와 귀중한 경험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는 주석님의 회고록은 인생의 참된 교본입니다.

주석님의 영웅서사시적 생애에서 삶과 투쟁의 진리를 터득하는 시간 ≪회고록을 펼치며≫, 오늘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어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이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애국의 기치아래 하나로 단결할수 있으며 단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떨칠수 있는 민족임을 힘있게 확증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민족이 살아갈 길도 통일전선에 있고 민족이 번영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자신께서 해내외의 우리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1936년 어느날 백두산밀영으로 천도교의 박인진도정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전민족이 총동원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광복하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정신에 완전히 매혹된 박인진도정은 주석님이시야말로 조선의 한울님이라고 굳게 확신했답니다.

그는 위대한 주석님께 천도교의 백만청년당원들을 모두 조국광복전선에 묶어 세울 것을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라면 성벽을 쌓던 천도교인들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지펴주신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조국광복회 갑산지회에서는 원래 천도교인들이 바치는 성미를 천도교중앙에 올려보내곤 했는데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그 성미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에 보내주었습니다.

서간도의 민중들도 인민혁명군이 식량보증을 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결혼잔치, 환갑잔치, 생일잔치감으로 모아두었던 쌀까지 서슴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각계층 민중들이 위대한 단결의 중심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노동자, 농어민은 물론이고 도시의 소시민과 민족자본가 등 구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가게방집과 같은 평범한 소시민가정과 산골의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애국지주 김정부, 갈줄 몰라 헤매이던 지식층의 대통영감과 완고하던 옹성라자의 좌상노인.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삼천리방방곡곡은 물론이고 만주와 바다건너 일본땅에 사는 이천만 조선동포 모두를 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 세우셨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 **≪조선민중은 분열이나 대립보다 통일이나 화합을 더 좋아하는 민중이며 당파와 소속,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싸워나갈수 있는 뛰어난 의지를 가진 민중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고 쓰셨습니다.

그 단결의 힘으로 우리 겨레는 간악한 강도일제를 쳐부숴던 겁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생전에

>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수 있다는 것이 민족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에게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 **반세기전에 이미 통일전선의 경륜을 훌륭하게 이루어온 우리 민족이 왜 지금에 와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겠는가. 그 이유란 아무것도 없다.≫**

고 절절히 강조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문제는 단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결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단결의 위대한 중심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훌륭한 민족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모신 통일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앞길은 휘황찬란할 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8일

부시행각저지 반미집회
민중연대

각계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의 집회로 지난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쟁위협, 내정간섭, 경제침탈 부시행각저지 반미결의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700여명의 노동자, 청년학생, 빈민,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 ***집행위원장은 최근 부시가 연두교서를 통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정세를 전쟁위기에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부시의 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연합 오종렬의장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현정부이며 이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부시라고 단죄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시의 행각을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 전병덕위원장은 정부가 대우자동차를 미국의 독점재벌에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미국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폭로하고 미국의 경제침략과 수탈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부시가 각계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돌아갈때에는 제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또 미국의 무기강매반대와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위원회 김종철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막아내자는 내용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윤기진상임부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미국의 전쟁확대기도와 무기강매증가, 북미관계정상화, 대우자동차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중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중연대는 앞으로 부시의 행각을 반대해 기자회견을 가지는 한편 미국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앞에서 시위, 농성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부시행각기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부시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부시규탄범국민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는 최근 부시의 연두교서로 사회 각계층에서 반발여론이 높은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해 시종일관 미국에 대한 규탄의 분위기로 끓어번졌습니다.

부시망언철회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5일 미대사관앞에서 열린 시민마당에서 권영길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가 망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대표는 미국의 연일 계속되는 초강경발언이 온 세계를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전쟁에 ***하는 부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대표는 정부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한국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에 맞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대표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항의서한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도 이날 미대사관앞에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 김상배국장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반대 계단식합동기자회견
공동실천위원회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위원회는 6일 미국대사관앞에서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철회,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를 위한 부시방한반대 계단식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적 반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미대사관, 외교통상부, 용산미군기지, ***,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18일에는 부시방한반대를 위한 500인시국선언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부시가 방한하는 19일에는 용산 가족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20일에는 범국민대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교단체, 부시규탄움직임확산

방한을 앞둔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강경일변도로 치닫는데 대한 종교계의 규탄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0여개 불교단체는 7일 오전 11시 조계사옆 만해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시의 망언에 이어 미국방장관 럼스펠드도 이북을 비난하는 망발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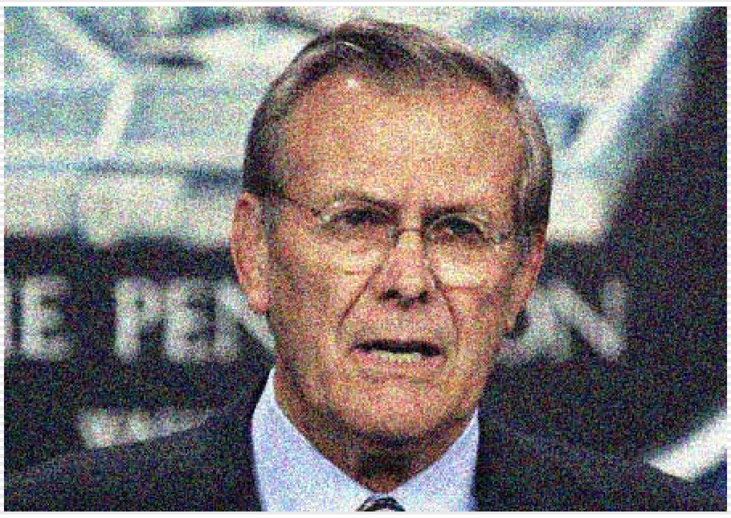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방장관 럼스펠드는 **군사위원회에 내년 회계년도 국방예산에 관해 운운하면서 이북이 수용소에 10만내지 20만명을 가지고 있다느니 국민을 억압하고 굶어죽게 하고 있다느니 생화학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느니하고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까마귀입에서 앵무새소리가 나올수 없는 것처럼 호전광의 입에서 **** 소리밖에 나올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미국대통령 부시가 지난달 30일 ≪연두교서≫에서 이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망발해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때에 부시정권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북 민중들은 물론이고 우리 겨레를 크게 분격시키는 험담을 늘어놓은 것은 결코 우연치않다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북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평화애호국가입니다.

이북에서는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것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북이야말로 민주민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격찬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북에 그 무슨 수용소가 있을리 없다는 것은 엄연한 일입니다.

이북의 인권을 심히 유린하는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 10만내지 20만이 갇혀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북을 헐뜯기 위해 날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북이 국민을 억압하고 굶어죽게 한다는 말도 이북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등 근로하는 민중이 자기를 억압하고 굶어죽게 한다는 소리는 이치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궤변입니다.

이북 민중이 최근 수년간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도잘못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틀려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의 대북압살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호전광들이 떠들어대는 대량살상무기개발국 역시 순전히 이북을 헐뜯기 위해 고안해낸 날조품입니다. 이북에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가 사실과 맞지 않은 날조품을 들고 나와 이북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북의 날로 높아가는 권위를 떨어뜨리고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불순한 목적이 숨어 있는 저들의 대테러전쟁의 확대와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집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호전광들이 감히 복지국가, 평화애호국가로써 존엄높은 이북을 헐뜯는 것이야말로 이북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투쟁해나가는 세계 진보적 인류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고 음모인 것입니다.

미국호전광들의 이같은 연이은 대북강경발언과 험담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부시를 비롯한 미국호전집단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철천지원수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미국호전계층은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일족속의 후예 이회창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2월 4일~6일

요즘 정계와 사회 각계에서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행위가 화두로 되고 있다. 화두의 골자는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일제때 검찰서기로 근무하면서 일제의 손발이 되어 세상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물론 이홍규의 친일행위가 세간에 불거져 나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이회창은 애비의 행적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했을뿐 아니라 세론을 엎어넘기기 위한 권모술수로 일관했다.

지난 2001년 7월 27일 이회창은 어느 한 자리에서 지난 대선때도 야당이 부친의 친일의혹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자식때문에 부친이 욕본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죄송스러웠으며 어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제시대때 자기 애비가 어떤 친일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친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식의 이른바 동정론을 호소했다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친일을 해도 악독한 친일분자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원래부터가 친일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특등 친일사대부이다.

일찍이 이조 정권가문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자 재빨리 일제를 숭상하며 그의 날개밑에 깊숙이 기여들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홍규는 내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몹시 후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넋두리가 떨어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홍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입는 옷마저 기모노를 입었고 게다짝을 끌고 다니면서 내지인흉내를 피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가 하면 어린 이회창과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녘하늘을 향해 동성일배를 하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 제도화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얼마나 지독한 친일분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일제의 검찰관리부에 출세의 길을 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제때 검찰관리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관직이였다. 그런데 이홍규는 어떻게 이런 철통같은 문을 뚫고 검찰계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었으며 특히 검찰서기로까지 뚫아 올라갈수 있었는가하는 것이다. 한때 이홍규와 같이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법조계의 원로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홍규의 친일기질은 나무랄데 없다. 일제검찰청 수뇌들앞에서 대일본제국에 충성할 것을 혈서로 맹세한 자가 다름아닌 이홍규씨다. 이것이 아마 일본 사람들도 넘겨다보기 어렵다던 검찰계통으로 뻗은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검찰청 검찰서기로 발탁된 이홍규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악질적으로 놀았다는 것은 더 길게 설명할 말이 없다. 무고한 주민들, 특히 일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애국투사들을 이른바 마적단으로 몰아 잔인하게 처형학살했다. 검찰서기 이홍규가 놀리는 펜대에 의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판국이였으니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일본인 검사들조차 이홍규의 파쇼적 기질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하니 왜놈들의 손발이 되어도 이만저만한 악질친일주구가 아니였다.

이런 공로로 하여 이홍규는 일제 검찰청으로부터 특등공신으로 치부됐고 표창까지 받았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바로 이런 자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이회창이 제 아무리 애비의 친일행적을 숨기려해도 그것은 이 밝은 세상에 통할수 없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친일주구의 피를 받고 자란 이회창이 달리는 될수 없다. 이회창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애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친일파족속들은 이미 전에 숙청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친일족속들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다니는 것부터가 민족에 대한 모독이요 수치이다. 더욱이 이런 친일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영향을 받은 이회창따위가 오는 대권을 노리고 있으니 슬픔을 넘어 경악을 금할수 없다.

친일주구의 족속,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8일

2.16경축 영화상영순간 개막

2.16경축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였다.

이번 영화상영순간에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영화들과 조선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상영된다.

그가운데는 ≪빛나는 삶의 품≫,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기록영화들이 있다.

그리고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과 ≪자강도사람들≫, ≪꽃에 깃든 사연≫, ≪군인선서≫, ≪월미도≫, ≪청춘의 자서전≫ 등의 예술영화들도 상영하게 된다.

영화상영순간 중앙개막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와 강능수문화상 등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기념우표발행

조선에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여러 종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는 인민들의 축원의 마음을 담은 우표 ≪축원의 꽃바구니≫(30미리메터×42미리메터)도 있다.

꽃바구니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 그리고 목란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로 엮어 져 있다.

붉은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이 새겨 져 있다.

소형전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기념≫(84미리메터×128미리메터)에는 21세기 태양으로 칭송 받고 계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영상이 모셔 져 있다.

소형전지 ≪장군님과 전사들≫(125미리메터×100미리메터)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초병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영상을 모시고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1절가사와 악보를 편집하였다.

이밖에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묶음전지 ≪백두광명성탄생기념≫(136미리메터×104미리메터)도 있다.

평양시 농업근로자 2.16경축모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7일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의 경축사와 농근맹원들의 연설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 지적되였다.

또한 농업생산을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등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세계를 위협하는 미국의 국방예산

조선중앙통신 론평

보도에 의하면 미국대통령이 3, 790억딸라의 군사비지출을 예견한 2003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20년간의 최대규모로 되는 이번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5프로증가함으로써 미국가예산전체의 20프로정도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21세기에도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의 제왕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본심을 드러낸것이다.

미국이 요즘 ≪반테로전쟁≫을 세계적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범죄적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방비를 대폭 늘이려 하고 있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평정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지난 랭전시기와 비슷한 규모의 거대한 국방예산안을 책정하고 일방적인 군사주의를 고취함으로써 다극화를 주장하는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억누르려고 획책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현회계년도의 군사예산에 비하여 480억딸라나 더 늘어 난 국방예산을 세우면서 그 구실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들고 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설을 들고 나오는것은 저들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대량살륙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군비를 대폭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사실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 바로 ≪악마의 제국≫인 미국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는것이다.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반테로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제2의 랭전을 몰아 오려는 미국의 군사적모험책동은 세계 사회계의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와 변영립교육상, 사회과학원 태형철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덕망의 숭고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설론증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새 세기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력량과 반제자주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시였으며 그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신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라는데 대해서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라는데 대하여서도 해설하였다.

청소년, 아동 미술전람회 개막

평양미술축전 2.16경축 청소년, 아동미술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전람회에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청소년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 그리고 나어린 재간둥이들의 높은 예술적재능을 보여 주는 1, 2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여기에는 수예 ≪불멸의 꽃 **김정일**화≫, 조선화 ≪기다리는 마음≫, 판화 ≪장군님 다녀 가신 무산광산≫, 조각 ≪선군령도 만세≫, 선전화 ≪나도 어엿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리≫, 펜화 ≪혁명의 계승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람회 개막식이 7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와 문화성 조찬구부상 등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재중동포들의 2.16경축행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일 중국 단동에서 도서 및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전시회에는 심양주재 우리 나라 문영근총령사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양영동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동포들, 주재국 관계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여 있었다.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과 조선 인민의 투쟁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또한 록음강연과 좌담회, 단동 ≪**김정일**화온실≫참관 등 행사들과 경축연회가 있었다.

이에 앞서 참가자들은 예술공연과 조선영화를 관람하였다.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로동신문

≪로동신문≫ 8일부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며 조선인민을 ≪황국신민화≫하려는 군국주의적지배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명치유신≫≪1868≫후부터 자라난 일본의 조선반도지배사상은 자본주의발전단계에서 더욱 로골화된데 대하여 신문은 지적하였다. 글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식민지를 가지면 ≪번영≫하고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면 쇠퇴하고 만다는 강도적인 침략론리가 일본의 반동적인 집권층들의 머리를 지배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이 기본침략대상으로 지목한것이 조선반도였다.

지난 세기 4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머리속에는 조선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대륙에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며 조선이야 말로 일본의 해외팽창의 ≪비단길≫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지배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 지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떠드는 우리의 ≪군사적위협≫은 곧 해외침략전쟁준비의 적극적인 추진의 구실로 되고 있다.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북남간의 대립감정을 조장시켜 조선을 영원히 분렬상태에 있게 하고 조선민족을 쇠퇴몰락케 하려는 극악한 타민족말살사상이 깔려 있다.

더우기 그들은 조선이 통일되면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수행에 커다란 장애물로 될수 있다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강화는 조일사이의 대립관계를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군사적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화근으로 된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길은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는데 있다.

이렇게 하는것이 일본에 여러모로 유익할것이다.

로작을 프랑스에서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프랑스 에디쑈 데모크리트출판사에서 1월 30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규정해 주시였다.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2)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7일

일심단결은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혁명적랑만이 넘쳐 나게 하는 원천이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이며 온 사회에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강국이다.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은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 감정과 정서가 완전히 일치하는 혼연일체를 다져 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끝 없는 인간애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광명한 미래에로 이끄시고 계신다.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기에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무한한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제국주의광풍을 쳐 몰아 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비약하고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해 낼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일심단결을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천하지대본으로 틀어 쥐고 새 세기의 혁명적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근로자들이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김정일**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일심단결된 우리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맥박치는 순결한 생명체이고 **김정일**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드는 위대한 통일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시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이 있기에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담보되여 있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땅우에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펼쳐 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는 수령결사옹위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고 구상하시는 문제라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 하려는 신념과 의지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매혹과 그리움으로부터 우러 나온다.지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 전인민적 사상감정으로 숭고하게 발현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새로운 진군길에 오른 오늘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 있다.령도자는 언제나 군대와 인민을 생각하고 한없이 사랑하며 군대와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절히 그리워 하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풍모는 앞으로도 영원히 높이 발휘되게 될것이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시원도 주체조선의 뿌리도 일심단결에 있다.우리는 력사와 전통은 계승속에 빛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전통과 경험을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틀어 쥐고 계승해 나가야 할 일심단결의 전통은 ≪ㅌ.ㄷ≫의 단결의 전통이다.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ㅌ.ㄷ≫열혈투사들처럼 그 어떤 사심과 가식도 없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받드는 신념의 동지, 순결의 인간이 되여야 한다.당의 기초축성시기에 발휘된 순결한 충실성과 의리는 우리가 영원히 계승해 나가야 할 귀중한 단결의 전통이다.

우리는 자기 령도자의 위인적풍모에 한없이 매혹된 혁명전사들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혁명을 비상히 전진시켜 온 그 보람찬 나날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정신을 세기를 이어 영원히 이어 나가야 한다.

누구나 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충신들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숭배심을 가지고 령도자를 받드는 참된 전사, 누가 보건말건, 평가해 주건말건 묵묵히 일하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동지애가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단결의 힘은 사랑과 믿음의 위력이다.

우리는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동지애의 귀감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실록을 동지애의 교과서로 삼고 심장마다에 자자구구 새겨 넣어야 한다.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진정한 동지적 관계를 이룩하여야 한다.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지애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온 사회에 건전하고 고상한 도덕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군민일치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자기 수령을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곧 선군시대의 일심단결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하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주공전선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다른 부문들에서도 련대적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과학자와 기술자,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령도자에 대한 량심과 의리에서 누구보다 순결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실적으로 받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일군들은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 줌으로써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라남의 일군들처럼 3위1체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 와야 한다.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것은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데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 와야 한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위업에 깨끗한 충성심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핵무기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강성대국의 억년보루이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를 헤쳐오는 나날에 천백배로 다져 진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며 **김정일**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기어이 앞당겨 올것이다. (끝)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67회

학사 김경희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8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2시.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고결하고 그처럼 뜨겁게 높뛰던 경애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췄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모든 부문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운을 남기시고 서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서도 가실 수 없는 최대의 슬픔이었고 가장 큰 상실이였으며 전인류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불행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과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상제가 되어 수령님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수령님을 끝없이 추모하였습니다. 세계의 인민들도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거룩하신 위인상을 가슴에 새기며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애도기간에 연 2억1200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애도기간에 우리나라에 왔던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실업가들과 기술자들이 자기나라에 돌아가 기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이의 서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다. 세상에서 이런 인민은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양을 다녀간 문명자는 남조선 잡지 ≪말≫과의 회견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은 기자생활 38년만에 처음입니다. 그간 많은 공산진영의 여러나라 지도자들의 장례식을 목격했습니다. 스탈린이나 호치민의 장례식은 기록영화를 통해 봤지만 모택동의 장례식때에는 베이징에 있었고 특히 주은래 총리가 서거했을 때는 장례식을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 인민들도 평양사람들처럼 그렇게 비통해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고 계십니다.

수령님의 서거한 후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려면 생 전체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야 할 뿐아니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숭고한 공산주의 도덕관을 지닌 위대한 영도자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야 합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생 전체에 그를 오늘의 레닌, 경애하는 어버이, 스승으로 예찬하던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이 서거하자 그를 횡포한 독재자, 폭군이라고 하면서 그의 노작들을 회수하여 불살라 버리고 도시와 거리, 학교와 기업소들에 명명했던 스탈린의 명칭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러시아 역대 황제들의 동상은 그대로 두면서도 스탈린의 동산은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지어 스탈린의 시신을 태워버리는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고르바초프도당도 사회주의 이념자체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령의 위업을 거세말살하고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책동을 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이자는 총비서로 되자마자 영국을 공식국가 방문했을 때 먼저 맑스의 묘지부터 찾아 화환을 증정하고 인사를 올릴 대신에 자기 처와 함께 보석를 사려고 세공포 상점에 달려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수령의 위업을 받들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안의 다른 당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선배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세계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도덕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우리는 수령님을 생전에 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의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게 하는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제정해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정해 주시였습니다. 이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고 언제나 인민들 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높은 뜻이 구현되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전에 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의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을 형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결식 때에 관례를 벗어나 종전의 초상화가 아니라 생전에 가장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새로 모실 것을 발기하시고 그 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애도기간인 7월 1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행사를 할 때 우리 인민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초상화를 보면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신다고 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7월 19일 영결식날 마지막 길을 떠나시면서 햇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잘 있으라고, 언제나 승리하며 자손만대 행복하라고 당부하시는 듯한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는 순간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석함이 더욱 북받쳐올라 모두가 어이를 터뜨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앞세운 이날의 영결식을 본 외국인은 ≪한사람이 웃고 만사람을 울리게 사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밝고 환한 태양상을 모시고 싶은 하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텔레비젼 화면과 온 나라의 곳곳에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간직하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한 정치학 교수는 책 ≪정치 세계의 **≫에서 ≪정치지도자가 바뀌면 수뇌의 초상부터 바뀌고, 정치구호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것이 정치계의 상례였다. 그런데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에 모셔진 초상화는 온 우주를 밝혀가시는 주석의 환한 태양상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영화문헌들과 서사시, 송가를 기념비적 명작으로 창작해서 보급하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와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만들게 하시여 만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또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창작하여 보급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천연바위돌에 글발을 세기고 친필비를 건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묘향산의 유성폭포옆과 금강산의 내금강과 외금강 천연바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1994년 7월 8일 새김.≫,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련 구역에 있는 옥녀봉에 명당바위에는 ≪조선아 자랑하자. 5000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셨던 영광을. 1994년 7월 8일 새김≫. 이라는 만년대계의 글발을 새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조국해방 5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친필비를 판문점 통일각 앞에 건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천연화강석의 **에는 잊지 못할 주체83(1994)년 여름 어버이 수령님께서 고귀한 생애를 마치시기 하루전날에 친히 조국통일 관계문건에 마지막으로 쓰신 ≪**김일성**. 1994.7.7≫ 이라는 글발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대기념비 영생탑을 건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영생기원의 절절한 염원과 철석의 신념이 담긴 불멸의 대기념비 영생탑 건설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생탑의 형성시한으로부터 그 실현방향과 방도에 이르기끼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 정형을 친히 요해하시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반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높이 82미터에 달하는 영생탑이 불멸의 탑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영생탑의 윗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 원수별이 빛나고 있으며 탑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억년 드놀지 않는 신념의 글발이 숭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상징하는 진달래꽃과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던 목란꽃, 그리고 어버이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가 수천개의 천연 화강석으로 다듬어져 부각 되여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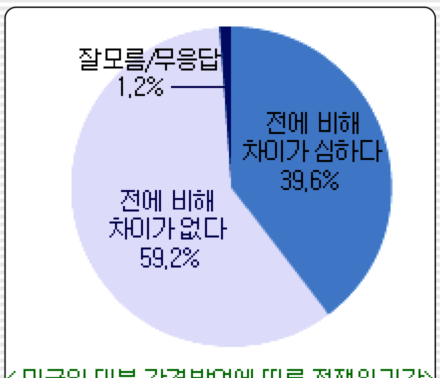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71% ≪악의 축≫ 발언 부적절

미 대북 강경책으로 전쟁위기감 40%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따른 반미 감정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두 국정연설에서의 이같은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 과반수 이상은 엔론사 파산, 중간선거 등 부시정권의 이해 때문에 이같은 발언이 돌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의 잇딴 대북 강경발언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무려 4명이 전쟁위기감을 전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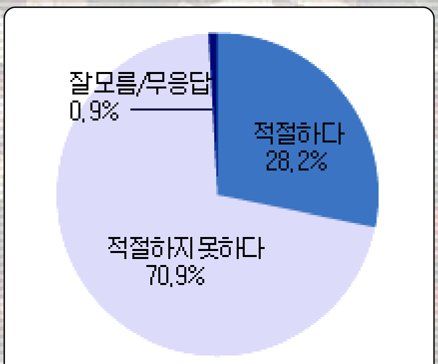
<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따른 전쟁위기감>

이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소장 홍형식)가 2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이다.

부시발언은 미국의 국내정치용 60.1%

이번 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0.9%(≪다소 적절치 못했다≫ 41.8%,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29.1%)였다. 이같은 반응은 연령층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층(20대 85%, 30대 8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보았을 때는 공무원(93.1%), 사무전문직(87.4%), 자영업(84.7%), 학생(8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악의 축≫ 발언이 적절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28.2%(≪매우 적절≫ 7.9%, ≪다소 적절≫ 20.3%)에 그쳤다.



< 부시, '악의 축' 발언 적절한가 >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은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고 인식했다. ≪악의 축≫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60.1%가 ≪엔론사 파산, 중간 선거 등 미국내 상황과 MD구축 정당성을 의식한 부시 정권의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대량살상 무기 수출로 테러를 간접지원하는 등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1.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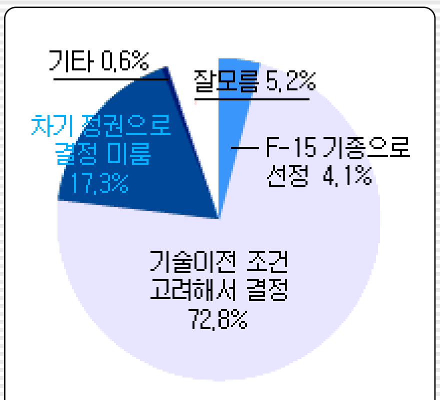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의 잇딴 대북 강경발언으로 ≪전쟁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강경발언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9.2%의 응답자가 ≪전에 비해 차이가 없다≫(≪전에 비해 전혀 차이가 없다≫ 13.4%, ≪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다≫ 45.8%)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전에 비해 전쟁 위기감을 심하게 느낀다≫는 응답도 39.6%에 달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북 햇볕정책 지지57%

국민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7%)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이 부정적인 반응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44.5%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우리나라 공군의 차세대



<미 보잉사의 F-15를 구매해야하는가>

전투기 F-X기종 선정과 관련해 미 보잉사의 F-15 구매를 강요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 중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기술 이전 조건과 가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2.8%로 나타났다. ≪우방이므로 미국의 보잉사 F-15기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차기 정권으로 기종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응답도 17.3%에 그쳤다.

이밖에도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57.2%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반대 39.3%)로 밝혔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대북정책을 비교할 때 각각 지지도는 44.0% : 32.9%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김병기기자
오마이뉴스 2002/02/08

김용갑-김원웅 ≪부시 발언≫ 놓고 설전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인가. 최근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는 자유를 가진 나라≫라는 인상을 준다.≫

최근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8일 최성홍 외교부 신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여졌다.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며칠 후면 방문할 부시를 보면서 과연 인디언 학살로 빼앗은 땅에 세운 나라의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까 걱정이 된다≫며 ≪테러방어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하겠다는 백악관 안보담당이 한 말처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부시의 대북강경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게 바로 미국이다. 중동에서 코소보에서 아프간에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분쟁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상무기는 미국에서 개발, 생산된 것인데, 심지어 탈레반이 미군에 대항하여 사용한 무기가 MADE IN USA가 아닌가.

북이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의 무기수출이 88년에 8억5천만달러, 90년대 초 2억달러, 90년대말에는 1억 달러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닌가? 이북제 무기가 알카이다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알카이다가 미제 스팅거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말인가?≫

김의원은 또 앞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을 향해 ≪반미냐, 친미냐 하는 것은 낡은 방식의 논리≫라며 ≪≪반미는 안 된다≫라는 대미 추종적인 사대주의는 냉전시대의 유물일 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나라도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주권국가≫라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이어 자민련을 겨냥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념적 간극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하는 정치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 보수세력인가, 국적이 어디인가 묻고 싶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북위협론의 확대재생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한 대북정책을 들고나와 햇볕정책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과 어떻게 의견을 좁힐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김의원은 또 ≪얼마 전 의원들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미국을 비판한 것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걱정이 되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대표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한 것도 적절치 않다≫며 ≪반미 감정이 대폭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부시 방한에 반미 감정은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성홍 신임 장관은 ≪다양한 사회 여론을 국회의원이 모아서 전달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외국 대사관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다고 (외국인들로부터)항의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미 대사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큰 잘못은 없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최경준기자
오마이뉴스 2002/02/09

미군기지 아파트건립발표 규탄

≪악의 축≫ 발언에다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까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내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11시 용산 미 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는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준)민족자주위원회 주최로 ≪용산미군기지 아파트 건립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파문 탓인지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주최측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보도해 달라≫는 당부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협상과정이 굴욕적이었다고 들었다≫며 ≪국방부는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미군기지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영구주둔하겠다는 음모≫라며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바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 발표는 지난 1월 한-미 당국이 합의했다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설날 연휴 직전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미군당국에게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계획은 부시방한의 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간략한 규탄집회를 가지며 이 후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김종일 자통협 공동집행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설 연휴 이후 16일에 총력집중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시도한다면, 공사차량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온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나선다면, 미국이 쉽게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어제(8일) 용산 미군기지에 5층 짜리 아파트 2개 동 60세대를 오는 6월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09

부시 방한 반대,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

6 · 15 공동선언 파탄내며 한반도 전쟁책동 자행하는 부시방한 결사저지 한총련성명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19, 20일의 방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 · 15공동선언 이행의 한 길로 쉼없이 최선두에서 달려왔던 한총련 백만학우는 6 · 15공동선언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자 그 장본인인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6 · 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로 좋게 발전해가는 남북관계를 냉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자 획책하는 장본인은 바로 부시이다.

침략과 약탈의 역사로 시작했던 미제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민간인의 학살마저 눈여겨보지 않으며 모든 것을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무조건 전쟁이라도 펼쳐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전세계를 냉전국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자가 바로 부시이다.

이러한 부시의 호전적 행각이 더욱이 무시되어질 수 없는 것은 그 창날의 끝을 이곳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도발책동을 통하여 화해와 단합의 땅 이 곳 한반도를 동족대결의 장, 민족공멸의 장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부시와 미국의 행각은 실로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부시 정권의 호전심복들이 서울에 날아들고 미국무장관 럼스펠트와 미합참의장의 서울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시 자신까지 서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군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전쟁에 대한 모의를 하기 위해서임이 명백하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이북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물론 재래식무기 감축문제까지 거들며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동족간의 대결을 조장하기에 열을 올렸으며 9 · 11사태 이후 한반도에 기동타격무력을 급속히 전개하는 것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더니 오늘에 와서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는 이북이며 이북이 ≪악의 축≫이라는 도발적인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대결은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이다. 시대와 역사 앞에 항상 당당히 나섰던 한총련 백만학우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한반도 전쟁책동을 일삼는 부시의 방한을 전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모아 반대해 나설 것이다.

아울러 6 · 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모든 책임은 바로 부시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부시를 규탄하는 바이다.

9일 오전 9시 15분경 한총련 소속 대학생 15명이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부시 미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을 펼쳐들고 유인물을 뿌리며 미대사관 정문 10여 미터 앞까지 행진을 벌인 학생들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9시 35분경 전원 연행됐다.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한총련 부시방한 저지 선봉대는 ≪19일 방한하는 부시 미대통령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로 좋게 발전해가는 남북관계를 냉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자 획책하는 장본인≫이라며,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공개사죄와 대북강경정책, 전쟁책동 중지≫를 촉구했다.

전 주한 미국대사들 이북 방문 무산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 한국주재 미국대사들의 이북 방문계획이 무산됐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보즈워스, 도널드 그레그, 리처드 워커, 윌리엄 글라이스틴 등 전 주한 대사 4명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 로버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 명예 교수의 방북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한국 방문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북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방북시기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이의 제기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인 오는 23-26일을 택해 이북을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일정이 재조정된 전 주한미대사들의 방북이 이번에는 이북측이 방문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3)

8. 올해는 선거의 해라 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당의 경선, 8월에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 여러 선거가 있는데, 나라 전체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민주노동당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 보는데, 대표님께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노동당 재창당을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진보진영을 총결집하자는 의도로 그러신 것 같은데 재창당부분에 대해...

재창당은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대화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밖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고 나니까 민주노동당 이외의 조직이나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닌 사람과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인색한 것 같다. 진보진영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려 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정파 연합적 정당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당이 아니다. 나아가 노동자들만의 당이 아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틀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다. 민주노동당 문을 열고 진보 진영의 단계를 위해 우리는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닦아 놓은 조직이나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나 심지어 강령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줘야 된다. 열려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실제로 열어 놓고 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화에 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9. 당명까지도...

그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선해산 후재창당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선해산 의미가 뭐냐? 당명 포기하라, 뭐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것은 재창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창당을 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형성돼야 할겁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흔히 우리가 노동자 · 농민의 당이라 이야기하는데, 민주노동당 안에는 농민의 참여가 극소수임을 저희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농민 참여 적습니다.

농민도 참여하고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체나 개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모일 사람도 없는데 당명의 문제, 선해산 이렇게 하면 재창당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부적 혼란만 일으키고 민주노동당이 결과적으로 분열이나 와해되는 국면에 처할 때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명 바꾸자, 어떻게 하자≫는 것은 건설적인 논쟁이 못 된다는 것이죠. 논의의 틀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10.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조직적 기반으로 민노총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2000년 총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직적 참여를 결정한 걸로 압니다. 사실 여부와 이것이 가진 영향에 대해...

아시는 바대로 민주노동당의 창당에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97년 대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로 추천하면서,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대선의 성과를 이어받아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였습니다. 그 결정을 민주노총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민주노총만의 당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해서 건설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만의 당이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는 데 동의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문을 열어 전체적인 진보진영이 결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란 것은 ≪민주노총에서도 각종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후보를 추천하자. 그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 즉, 민주노총에서 추천하지만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선거전에 임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결정입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홈페이지 에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8회로 나누어 연재하고 있습니다)

민가협, 설앞두고 414차 목요집회 개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4백 14번째 목요집회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양심수 어머니와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이 탑골공원 앞을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7일 탑골공원 앞에 모여든 보라색 수건의 양심수 가족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설이 되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남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길바닥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와 예비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은 이런 때 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에 구속된 임태열씨의 아내 박윤희씨는 ≪우리 지원이(7세)가 내년 설날에는 아빠 품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윤희씨의 품에 안겨 있던 지원이는 엄마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그만 손으로 닦아주며 ≪엄마, 울지마≫라며 엄마를 위로해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지원이는 아빠가 구속되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면회도 같이 가고 해서 아빠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원이가 7살이 되면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7살이 되도 아빠가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라며 요즘 부쩍 투정을 부리네요≫라고 말하는 박윤희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전향 장기수로 26년 동안 복역했던 김영식씨(69세)도 설날이 다가오며 더욱 마음 한 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마찬가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못해 가슴에 피멍이 맺힌 사연을 말하다 그는 ≪북쪽을 향해 세배라도 올려야겠다≫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민가협 어머니 대표로 나온 방영숙씨는 ≪수배 중인 아들에게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양심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적은 글을 낭독했다.

한편, 민가협 목요 집회 마지막에서는 6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인 2001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김한수씨(26세)가 척추 디스크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조선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것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씨는 6시간만에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진 것으로 밝혀졌으나, 민가협은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형사처벌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해맞이 공동행사 2월27일로 연기키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조성되고 있는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서 2월27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오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고, 이같은 내용을 오늘(9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를 비판하는 국내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에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합의한 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남북민간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의 엄중한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의 행사연기 결정은, 지난 7일 오전 종단 수장회의에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기간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날짜가 겹침으로서 시기적으로 민감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일정 연기와 관련, 지난해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연맹간의 ≪단오명절행사≫가 북측의 ≪극심한 가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일정이 거듭 연기되다가 7월18－19일에 걸쳐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로 치러진 적이 있는데, 이번 남측의 행사연기 제의에 북측의 동의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계환기자
통일뉴스 2002/02/09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2001년 9월 18일 작성

차례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수립이 가지는 의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지난 1980년대 내내 미국은 북(조선)의 정치협상 제의를 묵살하면서 봉쇄압박과 무력위협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야말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타파·소멸해야 할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조선)반도가 지구 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타격지점으로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며, 한(조선)반도를 가리켜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태평양의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핵공격의 격발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던 쪽은 제국주의세력이었다. 1999년 10월에 세상에 드러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대한 무력과 막강한 첨단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미증유의 전쟁수행력을 과시해왔다. 미국은 이처럼 한(조선)반도에서 전략적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조선)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바랐고 정치협상 제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980년대에 조·미 관계가 처해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조·미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를 내놓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의 일방적인 공세를 물리치고 힘을 겨루는 대등한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한 무력한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기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조·미 사이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그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역량의 최대 시련기인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처해 있을 때,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를 내던지고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다시 꺼내어 휘두르면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타파·소멸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시련기에 들어서자 제국주의세력이 그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고립·압살책동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은 미약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정치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입증하였다.

그렇다면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정치협상을 중단하면서 집중시킨 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1) 북(조선)은 군사력으로 돌파하였다.

북(조선)은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위성체 ≪광명성 1호≫를 탑재한 3단계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우주공간을 향해 발사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주의세력은 경악하였고 종전처럼 적대·말살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정책을 바꾸

➡

광고

인터넷

6.15주간 33호

노작
3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기사
10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 방영!

특집 - 짖어라 부시야

한국민족민주전선
31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32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33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청년주체주의자대오
34 민족최대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35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6.15공동선언실현
36 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실무대표회담 기자회견

주한미군철수
40 BBC ≪미8군이 피난민 학살 명령≫

반통일세력단죄규탄
47 리회창이 자기의 죄과를 사죄하지 않는 한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는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엄청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였다.

북(조선)의 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사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혁명에서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정치외교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6월에 조・미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나 1994년 10월에 조・미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나 2000년 10월에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모두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시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3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북(조선)이 미국의 태평양지역 전략거점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기에 가능했으며,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서 채택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기에 가능했으며, 2000년의 조・미 공동선언 채택은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무력위협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자기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었고, 북(조선)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냈던 것이다. 제국주의세력과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이 미국의 심장부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협 앞에서 제국주의세력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의 적대・말살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정치협상의 길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난관과 역경을 정면돌파하고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총화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북(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혁명을 선군혁명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정치를 선군정치라고 부른다.

2) 북(조선)은 정치외교력으로 돌파하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상대하여왔던 북(조선)의 정치외교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전략,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외교전략, 그리고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이다.

외세의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외세라는 개념은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뜻한다. 북(조선)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전선에서 이탈하여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조선)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우회전략을 파탄시킬 수 있었다.

북(조선)은 교활한 제국주의세력이 선의로 위장하고 접근해올 때 방심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또한 북(조선)은 제국주의세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라는 반격구호로 받아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였다.

북(조선)은 한(조선)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중시하는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중・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반미공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과 중・러가 반미공조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은 모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북(조선)이라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만일 1998년의 ≪백두산 1호≫에 이어서 ≪백두산 2호≫를 발사하게 되면 일본도 그에 대응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추세는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를 종전대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려면 북(조선)이 ≪백두산 2호≫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미 정치협상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백두산 2호≫가 발사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2000년 10월에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의 북(조선) 공식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양을 찾아갔으며,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근접하였던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 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